1p 스마트 디바이스 쇼 top 11를 소개합니다

2p 지난 14일부터 16일, 총 3일 간 코엑스에서 개최된 스마트 디바이스 쇼 2018

3p 국내 유일의 스마트 디바이스 박람회로, 매년 독창적이고 재밌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소개되는 이유로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행사인데요.

4p 이번 행사에서도 역시 정말 놀라운 디바이스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중 부대행사를 통해 Top 11에 선정된 디바이스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순서는 등수와 무관)

5p 1. 얼굴인식 스마트 도어락

홍채·안면인식 기업인 아이리시스는 오는 8월 출시될 얼굴인식 스마트 도어락을 공개했다. 일단 얼굴 등록만 하면 이후 먼 거리에서도 단시간 안에 얼굴인식이 돼 편리하다. 사용자가 안경 착용, 화장 등을 하더라도 독자 알고리즘으로 인식이 가능하다. 아이리시스는 이미 국내 1위 금고사업자로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는 선일금고와 지난해 독점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아이리시스 대표는 "생체인식 기술이 금고에 적용됐다고 하면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라며 "그간 유럽, 중동 등의 B2B 시장을 주로 공략했는데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도 뛰어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6p 2. 인공지능 피부 비서 루미니

룰루랩은 삼성전자 사내벤처 C-Lab을 통해 스핀오프한 기업으로, 인공지능 피부 비서 ‘루미니(LUMINI)’를 개발했다. 루미니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10초만에 피부를 분석하고,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화장품을 추천해준다.  
  
KITAS Top10은 일상 생활을 보다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디바이스를 선정하는 것으로, 루미니는 KITAS Top10 중 유일하게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뷰티 디바이스이다. 딥러닝, 빅데이터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모공, 주름, 여드름 등 6가지 피부 항목을 분석하고, 화장품 성분을 기반으로 각 사용자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준다.

7p 3. 오버헤드형 스캐너

‘ET16 Plus’는 스마트 스캐너 전문 기업 CZUR 에서 만든 제품으로, 기존 평판 스캐너와는 달리 카메라가 제품 상단에 달려 있는 오버헤드형 스캐너다. 스캐너 아래 책을 펼쳐 놓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스캔 할 수 있도록 설계 됐다.

최대 A3 크기까지 스캔 할 수 있으며 훼손되기 쉬운 고서나 사물도 스캔 할 수 있다. ‘ET16 Plus’에 내장된 1천600만 화소 카메라를 이용해 비디오 프로젝트로도 사용 할 수 있다. 크기는 375 × 220 × 390 mm, 무게는 1.5 kg이다.

‘ET16 Plus’는 CZUR사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다. 책 곡면을 인식해 평평하게 보정하는 기능, 스캔 한 파일을 사용자 용도와 선호도에 맞게 편집하는 기능, 스캔 한 파일을 PDF, WORD, Searchable PDF로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다. 또 OCR이 기본으로 내장돼 187개 언어를 인식 할 수 있다

8p 4. 스마트 줄자 파이

인테리어·건축용 스마트줄자로 유명한 베이글랩스는 다음달 출시할 다이어트용 스마트 줄자 '파이'를 공개했다. 허리둘레, 목둘레 등 신체 사이즈를 쉽게 측정하고 결과값을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전송해 앱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각 부위별 둘레가 모두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사이즈 변화 추이를 기록해 몸 상태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차후 스마트줄자를 이용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인데 이 중 하나가 바로 패션시장 진출이다. 파이로 측정한 신체 지수를 온라인 쇼핑몰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9p 5. 에버스틱

에버스틱은 스마트폰이나 액션캠 같은 카메라에 특화된 장치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원하는 영상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연출 할 수 있다. 미디어 제작자가 많이 사용하는 삼각대, 모노포드(셀카봉), 스테디캠(짐벌)이 결합됐다.

크기는 35cm, 무게는 500g으로 생수병 1개 수준으로 배낭에 집어넣어 휴대할 수 있다. 고영화 인피니트 네오이즘 대표는 “지갑이 얇은 학생도 쉽고 저렴하게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창업 목표” 라며 “3축 짐벌이나 동급 제품보다 최소 2배 이상 저렴하게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p 6. **코르크 블루투스 스피커**

이디연은 빈 병을 울림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코르크'를 전시했다. 스피커를 빈 병에 끼우면 소리가 빈 병에 울려 더욱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있다. 특히 병의 재질, 크기, 두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음질이 달라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운드를 낸다.  기존 코르크에 조명 기능을 추가한 차기작은 이달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11p 7. 스마트 링 아보아링

오투원스는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인 '아보아'를 내놓았다. 반지를 낀 채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과 연동해, 스마트폰을 터치하지 않고도 한 손가락만으로 음악 재생, 사진 촬영 등이 가능하다. 블루투스 기반으로 10m 내외까지 연동되며 SOS 기능, 음성녹음, 스마트폰 분실방지 등의 기능도 탑재했다.

오투원스 스마트반지는 12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IP67 방수등급 인증을 획득해 물에 닿아도 안전하다. 전화걸기, 음성녹음, 휴대전화 분실방지, 진동알림, 카메라 앱 컨트롤, SOS기능 등이 있다. NFC 칩이 삽입되어 교통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람 손에 따라 총 10가지 사이즈로 출시했다.

12p 8. 360도 VR 카메라 '롱쉽'

국내 최초 Plug & Play 타입의 360도 VR 카메라도 선보인다. 캐링솔루션의 '롱쉽 360도 카메라'는 충전이나 와이파이 설정, SD 메모리 카드가 필요없다. 시중에 판매되는 360도 카메라의 가격은 대부분 수십만 원대가 넘어 접근성이 떨어졌다. '롱쉽 360도 카메라'는 2K 보급형으로 누구나 쉽게 360도 카메라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10만원 대 가성비가 장점인 제품이다. SNS에 최적화 되어 있어 손쉽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공유할 수 있다. 360도의 흥미로운 영상에 관심있다면 이번 휴가철 필수템으로 제격이다

13p 9. **버튼 점화 스마트 양초 '루모스캔들'**

세계 최초로 버튼식 자동점화 향초가 출시된다. 루모스 캔들(Lumos Candle)은 기능이나 모양은 일반 향초처럼 보이지만, 라이터나 성냥 같은 점화도구 없이 버튼만 누르면 점화를 할 수 있는 제품이다. 버튼 점화의 비밀은 아래 놓여 있는 '패드'에 있다. 초 안에 삽입된 나무심지 끝단에서 전기방전이 유도되면서 실제 불꽃이 점화된다.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완충 시 하루 4번 점화할 경우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4p 10. **골전도 스마트 안경 '시선 비콘'**

국내 안경 전문 제조 기업이  골전도 헤드셋 전문 기업과 협력해 개발한 골전도 스마트 선글라스다. 귀를 막지 않고 소리를 듣기때문에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완충시 최대 120시간 대기할 수 있고, 연속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7시간이다. 진동자는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댈 수 있다. 무게는 렌즈 제외하고 37g이다.

15p 11. **스마트 인솔 'I-SOL'**

웨어러블 스마트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을 통해 보행 분석을 할 수 있는 티엘아이(TLI)의 스마트 인솔(깔창)이 출시된다. 사용자의 보행 데이터가 스마트 인솔을 통해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되면 양 발의 밸런스, 보폭, 균형, 발각도, 걸음 수, 속도, 칼로리 소모 등을 분석 측정하여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웨어이다.

16p 지금까지 살펴본 스마트 디바이스쇼 2018의 top 11 제품들 어떠셨나요? 혁신적이면서도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조금은 감동적이었어요

17p 이 디바이스들이 바꾸어줄 우리의 일상,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내년에 있을 아홉번째 행사에 여러분을 모두 초대합니다!

18p 제작 스마트 콘텐츠 센터 블로그 기자단 3기 백지수